교회, 내 의식이 예수 먹는 잔치

(누가복음 12:41~48)

41.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42.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43.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44.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교회, 내 의식이 예수 먹는 잔치>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교회, 내 의식이 예수 먹는 잔치'
본문의 말씀은 앞서 살펴보았던 깨어있는 종들의 비유에 이어지는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깨어있는 종들의 비유는 주인이 출타했을 때에 종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의 귀가를 기다리듯이 예수님에 대해 깨어있으라는 주제의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앞서 41절을 보면 열두 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깨어있는 종들의 비유는 예수님을 향해 항상 깨어있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예수님을 의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의식하기는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 시인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이 말씀이 자신들에게만 하신 말씀인지 무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납니다. 12장 1절을 보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마치신 후에야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종들에게 항상 깨어있으라는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이 비유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에서 어떤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의 의식이 특정한 누군가를 향해 깨어있다는 것은 곧 내가 그 사람의 최측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열애중인 남녀는 언제 어디서나 애인을 의식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도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도 일을 할 때도 언제나 애인을 의식하기에 애인을 만날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신혼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신랑은 신부를 의식하고 신부는 신랑을 의식하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베드로의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와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신랑이 어느 날부터 다른 여자들에게 자신을 기억해줄 것을 요구한다면 어떨까요? 말이 되지 않지만 베드로가 예수님께 걱정한 것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항상 깨어있어 예수님을 의식할 정도면 예수님의 최측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최측근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몰려든 수만 명의 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에서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만약 그 자리에 모였던 수만 명이 항상 예수님을 의식하게 된다면 마치 신랑을 다른 여자들에게 빼앗기는 것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표로 나서서 질문을 했지만 다른 제자들 또한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먹구름이 생기게 되었던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말씀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과 가까운 자신들과 같은 제자들에게만 이런 말씀을 하시기를 바랐습니다. 열애중인 남녀가 서로에게는 관심을 약속할 수 있지만 이름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부탁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열두 제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태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으로부터 교회가 왜 세상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최측근이 되는 것은 자신들의 특권이라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최측근이 될 수 있다면 예수님 의식하기는 더는 특권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향을 향하고 계셨습니다.

본문의 청지기 비유의 의미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베드로의 생각대로 열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 항상 의식이 깨어있어야 하는 최측근이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종이 많은 부잣집에서 특별히 주인의 맘에 든 종과 같았습니다. 주인은 이러한 종을 청지기로 삼습니다. 이제 청지기는 주인 대신 종들을 관할하고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이 청지기가 여러 종들 중에서도 주인의 최측근이듯이 바로 제자들이 이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열두 제자는 교회의 시작이며 최초의 교회 모임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청지기 비유가 뜻하는 예수님의 최측근인 제자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청지기로서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사명은 다름 아니라 다른 모든 종들 또한 주인에게 깨어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은 깨어있는 종들의 비유를 통해 의식이 예수님께 깨어있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베드로는 그 깨어있음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제자들의 걱정과 근심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청지기 비유를 통해 제자들이 최측근임을 인정하시며 또한 최측근으로써 해야 될 일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의식이 예수님에 대하여 깨어있었듯이 제자들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하여 의식이 깨어있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돕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최측근이 자신들로만 한정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최측근임을 인정하시면서도 또한 최측근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의식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향하도록 돕는 청지기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내용과 연관하여 생각할 수 있는 성경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그립바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이게 예수를 전하고자 하였으나 이들은 바울이 미쳤다고 여깁니다. 29절을 보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열두 제자는 교회의 태동이었고 싹이었습니다. 열두 제자는 예수님의 최측근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의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이 해야 할 일은 바울이 보여준 것같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의식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상이 사회적으로 높든 낮든 구걸하는 사람이든 걷지 못하는 사람이든 자신들과 똑같이 예수님과 거리가 없는 최측근으로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삼을 수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2절에서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최측근으로써 해야 할 일은 바로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종들의 비유와 청지기 비유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식이 예수님을 향해 항상 깨어있기 위한 양식은 바로 복음으로써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5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하셨고, 32~33절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고 하셨던 바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을 상징하는 성만찬 또한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임을 의미합니다. 열두 제자가 청지기로서 해야 할 일도 이와 같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먹거리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의식의 내용이 되도록 만들어 준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공백과는 별도로 지정의 활동을 위한 재료들을 의식을 통하여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을 먹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의 오감이 포착하는 대상들을 의식으로 붙잡습니다. 세상의 대상들을 생각하고 느끼고 뜻할 거리로 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청지기로서 해야 할 일이란 이렇게 오감을 통하여 의식의 먹거리를 포착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의식의 먹거리로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곧 교회의 태동이었기에 우리가 속한 교회가 해야 하는 일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도 바로 우리의 먹거리가 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지정의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의식이 무엇인가를 먹어야 지정의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위장에서 밥이 분해되어 에너지로 바뀌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의식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가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의식이 대상을 포착하는 것을 먹는 것으로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청지기로서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예수님의 최측근으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순절 사건 이후에 잘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자나 깨나 예수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해줄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 아니고, 건강하고 장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천국에 대한 이야기조차 언제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의식의 먹거리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공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을 평생의 일로 삼는 것입니다.

정리해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크기의 공백을 가지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 이외의 별도의 대상으로 마음을 채우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육체의 오감을 통하여 느껴지는 세상의 대상들을 의식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편 예수님은 사람들의 의식의 먹거리가 되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최측근인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세상 대신에 예수님을 의식의 먹거리로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듣는 사람에게는 이 사건이 바로 지금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믿음의 사건이며 영의 사건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으로는 한 차례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청지기로서의 교회를 통해 다시 언급될 때에 사람들에게는 지금의 사건으로 변하게 됩니다. 지금의 사건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십자가의 죽음을 먹어야 한다.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과의 거리는 없어지고 우리 또한 예수님의 최측근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먹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삶의 현장에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것들을 먹는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부부문제, 자녀문제, 경제문제 등을 의식으로 먹는 동안 마음에는 걱정과 염려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로 모일 때에는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먹게 됩니다. 또한 서로에게 의식의 먹거리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제공합니다.

예수님을 먹으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인정합니다. 내가 그렇게 염려하던 재정문제나 자녀문제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자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식하게 될 때 예수님의 최측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돈이 최측근이었고 자녀가 최측근이었습니다. 건강문제 경제문제 인간관계가 나의 의식을 빼앗아 가는 동안에는 그러한 문제들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을 먹거리로 제공받음으로써 예수님의 최측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일이 43~44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고 하셨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속한 종들과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청지기의 역할을 잘 수행할 때에 주인은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최측근이 된 자들은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똑같이 누리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것을 떠올려보자면 겁나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갖고 계셨습니다. 또한 그 아버지의 복사판 영이신 성령님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세상의 어떠한 대상도 존재할 수조차 없었기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 또한 교회를 통하여 십자가의 예수님을 의식의 먹거리로 제공받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의식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먹거리로 삼는 동안 나의 마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에 참여하여 사위일체를 이루게 됩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과 성령님이 예수님에게서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예수님에게서와 똑같이 성령님께서 나의 성령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처럼 우주적으로 삼라만상의 주인은 되지 못할지라도 내 마음은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과 같은 것을 생각하고 말하게 되기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청지기와 주인의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청지기가 하는 일에 대해 주인의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다. 청지기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주인의 생각과 같고 주인이 무슨 생각을 하든지 청지기의 생각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의식의 먹거리로 삼고 예수님 의식하기를 지속할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것이 되실 것이고 또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것이 되실 것

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성령님이 내 것이 된 상태에서 절대평강과 절대기쁨이 확인됩니다.
절대평강과 절대기쁨을 확인할 수 없다면 그것은 임의로 행하는 일이기에 멈춰야만 합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절대평강과 절대기쁨이 확인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된 상태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느끼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니 두렵기까지 합니다만 나 하나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이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나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사이비 교주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약속은 저뿐만 아니라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예수님을 의식의 먹거리로 삼게 된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것을 다 내 것으로 가질 수 있어야 하고 절대평강과 절대기쁨을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는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아버지가 생각하고 느끼시는 것과 똑같게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결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 온라인 교회 모임의 영상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온라인 교회에 참석하신 한 목사님께서도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두 시간가량 진행되는 모임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버려지는 것이 아까워서 녹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께서 운영하시는 사이트에 그 녹화의 부분을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온라인 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양해를 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온라인 교회 모임의 전체 영상을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 온라인 교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두 시간 동안 하는 일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식의 먹거리로써 십자가 예수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재 십자가 온라인 교회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면 약 스무 명 정도가 계십니다. 얼굴을 공개하고 참가하시는 분들도 계시며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주로 인도를 하고 있지만 참여하신 분들의 말씀이 저에게도 십자가 예수님을 먹거리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먹는 하나의 잔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음식을 먹기만 하면 예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특이한 음식이기에 잔치도 이런 잔치가 없습니다. 다만 참여하는 분들이 늘어난다

고 하여도 시간이 정해져 있기에 모든 분들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없다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다만 예수님의 죽음을 서로가 서로에게 먹이는 잔치를 이루었다면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기회는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의무이며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서로를 먹이는 것은 해야 되느냐 마느냐 고민해야 될 선택사항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청지기의 역할을 할 수 없다면 주님께서 실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읽지 않은 본문 47절에서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라고 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진행될 십자가 온라인 교회 모임의 전체 영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청지기로서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성도들끼리 모일 때에도 서로를 먹어야 할 것이며,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최측근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 예수님을 먹거리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해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을 십자가 온라인 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기억하셨다가 영상을 보시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최측근인 열두 제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자신들과 같이 예수님의 최측근이자 청지기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해야 하는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의식의 먹거리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과 성령님을 우리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의 일 또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남 없이 이루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말도 안 될 정도로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되었습니다. 이 약속을 수행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교회는 지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저를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오늘도 먹거리

삼아서 의식이 항상 주님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와 성령님이 나의 아버지와 성령님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어지는 절대평강과 절대기쁨 가운데 생각과 느낌과 의지가 아버지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놀라운 특권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